

광주형 일자리 'GGM' 양산체제 돌입... 노사상생 새 역사

(광주글로벌모터스)

첫 지자체 주도 사회통합형 일자리
23년 만의 국내 완성차 공장
이용섭 시장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광주형 일자의 첫 적용모델인 광주 글로벌모터스(GGM)가 15일 역사적인 본격 양산체제에 돌입한다.

2019년 1월 광주시와 현대차가 투자 협약을 체결한 지 2년8개월, 2019년 12월 자동차공장을 착공한 지 1년9개월 만이다.

국내에서 처음 시도된 사회통합형 노사상생 일자리 모델의 기획에서 설계, 모델확정, 협약 체결, 착공, 완공, 양산에 이르는 모든 과정의 완결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는 고비용 저효율이란 한국제조업의 고질적 문제와 체질을 개선해 노동자에게는 안정된 일자리, 기업에는 적정한 수익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최초 지자체 주도 사회통합형 일자리, 대한민국 1호 상생형 지역 일자리, 23년 만의 국내 자동차공장 완공 등 한국 경제에 이정표적인 의미와 효과를 남기고 있고 현재진행형이다.



지난 2019년 1월 31일 광주 서구 광주시청에서 열린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약식에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에서 두번째)과 이용섭 광주시장(왼쪽에서 두번째), 이원희 현대자동차 대표이사(맨 오른쪽),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의장이 참석했다. /뉴스시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GGM은 오는 15일 시판용 첫 자동차 생산을 시작으로 올 연말까지 4개월 동안 1만2000대의 자동차를 생산하고, 내년부터는 7만대 이상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연 10만대 생산규모지만 향후 증설을 통해 20만대까지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GGM 공장은 친환경화, 디지털화, 유연화라는 3대 콘셉트로 건립됐고, 현재 라인에서 바로 전기차, 수소차를 생산할 수 있는 최첨단 유연생산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공장이 자리한 빛그린산단에는 국내 유일 친환경차 부품인증센터 등이 들어서 있고 부품클러스터, 무인 저속특장차 규제자유특구로도 지정돼 있어 명실상부 국내 미래형 자동차 거점으로 기대된다.

GGM에서 생산되는 경형SUV는 2대 주주인 현대차가 개발, 판매, 서비스까지 모두 담당한다. 엔트리 SUV를 선호하는 세계적 추세와 고품화, 1인 가구 확대와 같은 시류에 발맞춰 가성비 좋은 '캐스퍼'가 출시되면 보다 많은 수요가 예상된다.

공장 완공과 양산이 주는 사회·경제적 효과는 크고 광범위해 당장 침체에 빠진 자동차 업계와 부품산업에 활력을 불어 넣고, 고용효과도 적잖을 것으로 보인다.

양산체제를 앞두고 539명을 1차 채용했고, 연 10만대 생산 기준으로 1000여명의 정규인력을 직접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1차 채용인원의 93.4%가 광주와 전남 출신이고, 연령대별로는 20대가 275명(51%)으로 가장 많았다.

공장 설계와 건축, 설비 구축까지 더하면 간접 고용창출 효과는 1만1000여명에 달할 전망이다.

밀양, 대구, 구미, 황성, 군산, 부산, 신안 등 광주형 일자리가 전국 곳곳으로 확산되는데도 GGM이 선구자 역할을 톡톡히 했다. 여기에 평화적인 노사문화 정착을 통한 노사갈등 리스크 감소와 해외 진출기업이 다시 국내로 들어오는 리쇼어링 효과도 기대된다.

공공·민간 임대주택과 노사동반성장센터 건립, 거점형 어린이집과 공동직장 어린이집, 개방형 체육관, 여기에 390억 원대 빛그린산학융합지구 조성 등도 GGM의 성공적 연착륙에 힘을 보

태고 있다.

광주시는 이를 위해 10개 부서와 4개 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업팀을 구성, 근로자 주거비 지원 등 공동복지 프로그램은 물론 노사민정간 의견 조율, 광주형 일자리 성공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용섭 시장은 "처음 가보는 길이라 많은 난관에 봉착했지만 봉산개도 우수가교(逢山開道 遇水架橋)라는 고사를 가슴에 새기면서 노동이 존중받고 기업하기 좋은 노사상생도시 광주를 만들자는 일념으로 여기까지 달려왔다"며 "앞으로 GGM이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더 많은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논의 단계부터 '과연 이런 모델이 가능하겠느냐'는 회의적 시각이 팽배했지만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바라는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 광주시와 지역노동계, 기업의 진지한 고민과 협상,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초당적 지원으로 극복해 이뤄낸 결과물이란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고 덧붙였다.

/광주=김태수 기자 ts7080@metroseoul.co.kr

경북도, 첨단 도로교통체계 구축... 국비 확보 내년부터 초우량 암수소 수정란 농가 보급

공모사업 선정... 국비 138억 확보
실시간으로 교통상황 관제 가능

경북도가 '첨단 도로교통 체계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138억원을 확보했다.

12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주 진행된 국토교통부 주관 '2022년 첨단도로교통체계 구축 공모사업(평가)'에서 지역 5개 시(포항, 경주, 안동, 구미, 영천)가 대상지역으로 선정됐다. 내년부

터 2023년까지 총 사업비 230억원이 투입돼 올해보다 102억원 늘었다.

'첨단도로교통체계'는 실시간으로 교통정보를 수집·가공해 도로이용자에게 교통정보를 제공하거나 교통흐름을 관리하는 체계다. 경북에서는 포항, 경주, 구미, 경산 등 4개 시가 운영되고 있다.

첨단도로교통체계가 운영되면 실시간으로 교통상황을 관제하고 교통흐름을 분산해 지역 내 교통정체를 최소화하고 주변지역과 시스템 연계로 지역간

광역교통에도 대응할 수 있다.

이번에 처음 선정된 안동, 영천은 교통정보 수집장치와 교통센터, 분석·가공 시스템 등 첨단 교통환경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계속사업으로 선정된 3개시(포항, 경주, 구미)는 지역특성을 고려한 신호체계 개선, 2차 사고예방 돌발상황 검지, 긴급차량 우선 통행 등 교통안전 관련 신규 콘텐츠를 추가할 계획이다.

/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경북도축산기술연구소, 우량소 생산

경북도축산기술연구소가 유전능력이 우수한 초우량암소와 보증씨수소(KPN) 정액을 활용한 초우량수정란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생산·공급한다.

12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한우 번식우 개량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가를 대상으로 도내 초우량암소 보유농가의 협조로 공급된 난자를 사용해 생산된 수정란을 번식우(대리모)에 이식해 유전능력이 뛰어난 우량 송아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 첫 해인 내년에는 7개 시군(경

산, 김천, 문경, 상주, 영주, 예천, 청도) 21호 농가에 보유중인 초우량암소 22마리에서 수정란을 생산할 예정이다.

도내 초우량 한우암소는 47마리이며 전국은 273마리다.

연구소는 지역 한우농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초우량암소 중 유전능력과 번식능력이 우수한 암소를 공란우로 선발해 초음파 장비를 활용한 OPU(생체 난자흡입술) 방식으로 채취한 난자와 유전능력이 최상위인 보증씨수소 정액을 체외수정 해 수정란을 생산하게 된다.

/경북=김태우 기자

“전남 서부권도 공립특수학교 설립해달라”

공립 0곳... 사립만 5곳 위치
전남도교육청 “설립 어려워”

전남 서부권에도 공립 특수학교를 설립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2일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목포·무안 지역에도 공립 특수학교를 설립해달라'는 청원이 최근 잇따르고 있다.

청원인들은 '기존 특수학교 정원이 여유롭지 않고, 장애 특성과 수준에 따라 입학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며 서부권 공립 특수학교 설립을 원하고 있다.

실제 전남 서부권에는 공립 특수학교가 단 1곳도 없다. 목포·함평·영암·강진 등지에 5곳의 사립 특수학교만 위치해 있다.

반면 동부권에는 순천과 여수, 개교를 앞둔 광양 햇살학교를 포함 총 3곳의 공립 특수학교가 있다. 동부권에는 공립만 있을 뿐 사립 특수학교는 없다.

내년 3월1일 개교 예정인 광양 햇살 학교는 부지면적 1만4807㎡, 지하1~3

층, 총 23학급(유·초·중·고·전공과)의 전남 4번째 공립 특수학교다. 발달장애 학생 뿐만 아니라 시각·청각·지체 등의 중복 장애를 가진 학생 등 장애통합 특수학교다. 장애 특성을 고려한 치료실과 훈련실을 통합 배치하고 놀이와 치료를 병행, 치료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지원실을 갖춘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의 상황으로는 서부권 공립 특수학교 설립이 쉽지 않다. 공립 특수학교를 설립하면 현재의 사립 특수학교는 경영이 어려워진다. 사립 특수학교를 도태시킬 수 없지 않느냐"며 "사립 특수학교의 정원을 넘어선 수요 대상이 있다면 당연히 공립 특수학교 설립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광주 지역에는 현재 공립 3곳 포함 5곳의 특수학교가 있다. 신설중인 광산구 선운지구(공립) 특수학교가 개교하면 6곳으로 늘어난다.

/전남=양수영 기자

광주시

결식우려 어르신 급식 확대

광주시가 추석 전후 16일부터 25일까지 결식우려가 있는 어르신들에게 기존 1일 1인 1식 제공하던 무료급식을 1일 3식으로 확대키로 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제14차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시는 그동안 만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노인 보호를 위해 노인복지관 등 29개 경로식당 등에서 일일 평균 410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1일 1식 연 300일간 무료식사를 제공하고 700여 명의 거동불편 어르신들에게는 도시락을 배달해 왔다.

시는 추석 연휴 결식 우려가 커짐에 따라 무료급식을 확대키로 하고 민생안정자금으로 2억5000만 원을 추가 편성했다.

이달주 시 복지건강국장은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분위기 확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김태수 기자



순천 그린웨이 도시숲.

순천 그린웨이 등 '우수 도시숲' 5곳 선정

전남도, 10년 내 조성 숲 대상

전남도는 10년 내 조성된 도시숲을 대상으로 2021년 전남 도시숲 우수사례를 공모해 순천시 동천변 그린웨이 도시숲 등 5곳을 선정했다.

최근 도시숲이 최고의 힐링명소이자 아름다운 도시경관 창출, 미세먼지 차단 등 다양한 기능을 발휘함에 따라 숲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핵심 기반시설이 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6월부터 도시숲, 미세

먼지 차단숲, 가로수 등 3대 분야에 대해 우수사례를 접수, 24개소를 대상으로 전문가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심사를 거쳐 수상 시·군을 선정했다.

종합평가 결과 최우수상은 순천시 동천변 그린웨이 도시숲, 우수상은 여수시 구 덕양역 폐선부지 미세먼지 차단숲, 특별상은 신안군 신용저수지 가로수길, 목포시 삼학도 천년 가로수길, 해남군 우수영 천년 가로수길이 최종 낙점됐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